



# 장성군, 7억원 투입 “꿀벌 모셔라”

### 개체수 감소 심각 양봉농가 지원 ‘기자재·구제약품’ 등 10개 사업

장성군이 꿀벌 개체 수 감소로 피해가 큰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발 빠른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끈다.

장성군은 양봉농가 피해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기자재·구제약품’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7억1000만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양봉 농가는 물론 꿀벌 수분(受粉)에 열매 맺음을 의존하고 있는 농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꿀벌 실종은 장성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들어 꿀벌 감소 신고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성군이 발 빠르게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벌통 1개(군)에 1만5000여 마리에서 2만여 마리의 꿀벌이 들어 있어야 하지만 전체 1만600군 가운데 60%에 해당되는 6100군의 꿀벌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심각성을 인지한 장성군은 양봉농가에 기자재와 채밀대차를 지원하는 우수농군 지원사업 추진에 나섰다. 특히 채밀대차 지원은 수평 운반차에 꿀을 뜨는데 필요한 탈봉기·채밀기·발전기·비상 차단기가 모두 탑재돼 있어 양봉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여기에 응애, 노제마,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의 주요 질병 차단에 쓰일 구제약품 보급과 양봉·사양



수평 운반차에 꿀을 뜨는데 필요한 탈봉기·채밀기·발전기·비상 차단기가 모두 탑재돼 있는 채밀대차. 양봉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장성군 제공>

관련 기술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또 안정적인 채밀 기반 조성을 위해 삼계면 1.8ha, 북하면 10ha 규모 부지에 대표 밀원인 아까시 나무를 집중 식재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장성군은 도시 컬러마케팅으로 추진 중인 ‘엘로우시티 장성’의 관광 콘텐츠 확대를 위해

향후 ‘황금빛 꿀’과 ‘노란색 꿀벌’ 이미지를 도시 브랜드에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꿀벌 실종으로 고통받는 지역 양봉농가를 아낌없이 지원해 벌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 양봉산업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함평자연생태과학관에서 AR 체험하세요”

### 첨단기술 접목 체험형 과학관으로 재개관

함평자연생태과학관이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전시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관했다.

함평자연생태과학관은 단순한 곤충 표본 전시관에서 벗어나 AR(증강현실),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과학관으로 탈바꿈했다.

새 단장을 마친 자연생태과학관은 배움과 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호기심연구소는 배움을 주제로 한 전시관으로 나만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도감 만들기, 동식물 집중관찰 등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활용한 나비 미끄럼틀, 나비의 하루, 거미줄 구출작전, 꽃과 나비의 워터폴 등 나비와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꾸몄다.

과학관 외벽에는 다양한 곤충들을 증강현실로 만나 볼 수 있는 AR 그래픽아트월, 신비한 숲속 영상 등 체험형 전시물이 조성돼 있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함평군계지는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며 “올해 봄 가족과 함께 함평자연생태과학관에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연생태과학관은 함평자연생태공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운영시간은 휴무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함평자연생태과학관이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전시공간으로 새 단장했다. <함평군 제공>

##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 ‘食’ 주제...8월 1~8일 접수

강진고려청자박물관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50회 강진청자축제 기획행사의 하나로 제22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주제는 ‘食(먹을 식)’이며, 이와 관련한 모든 청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지난해 공모 주제였던 ‘飲(마실 음)’과 관련된 것은 제외했다.

출품 조건은 청자 태도와 유약으로 제작해야 한다. 또 주제에 맞춰 청자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형태와 기법으로 표현하고, 상품성·실용성을 갖춰야 한다. 작가의 국적·연령에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8월 1~8일 출품신청서와 작품설명서를 작성 후 강진고려청자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 합격자만 2차 작품 접수를 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9월 8일 발표하며, 입상작품들은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고려청자다지탈박물관에 전시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

공모전 대상 입상자(1명)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을 받는다.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특선은 10명은 상장과 함께 상금을 수여하고 입선자는 16명 안팎으로 뽑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나주시, 국내육성 신제품 배 생산농가 교육

### 신고배 편중 재배 해소 ... 신화·창조·슈퍼골드 등 재배방법 지도

전국 최대의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신화·창조·슈퍼골드’ 등 국내에서 육성한 고품질 신제품 배 재배 확산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6~17일 이틀 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장에서 ‘국내 육성 신제품 배 생산 농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교육은 주품종인 ‘신고배’의 편중 재배 해소와 신제품 배 생산 농가들의 의견 고취, 고품질 우리 배 재배기술 습득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최정범 과수기술팀장이 강사로 나서 ‘신화’, ‘창조’, ‘슈퍼골드’ 등 국내 육성 신제품 배 5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신제품

종류와 특징, 재배 방법, 유의 사항 등을 지도했다.

시는 이번 교육과 더불어 하반기 신제품 배의 원활한 유통·소비와 소비 트렌드 대응을 위한 국내육성 신제품 배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국내육성 품종 재배 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고배 편중 재배를 해소하고 다양한 품종의 재배면적 증가에 힘쓰겠다”며 “신제품의 육질, 당도 등 맛과 효능 위주의 맞춤형 홍보를 통해 나주 배 명성을 회복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 화순군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화순군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화순군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상수원인 주암댐과 동북댐에 수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불법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무인 드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

해 사각지대 없는 감시를 펼칠 예정이다.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장성경찰-농협, 안전한 장성 만들기 간담회

장성경찰은 NH농협 장성군지부 회의실에서 ‘안전한 장성 만들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전한 장성만드는 국가·자치·수사부서 등 전 경찰관이 참여하고 자치단체·유관기관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범죄 불안요인 환경을 개선하는 시책이다.

장흥호 NH농협 장성군지부장과 지역 농협조

합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방범시설 CCTV 확대 설치 필요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승관 장성경찰서장은 “안전한 장성군 만들기를 위해 유관 기관과 적극 협조하고 방범용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튼튼한 지키자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